

# 확 달궈진 '미니 총선'... 혈투 예고

## 오늘 재보선 후보 등록 본격 레이스 돌입 '영포 게이트' 변수속 은평을 최대 관심

'미니총선'성격을 띠고 있는 7·28 재보선이 13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재보선은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 8곳에서 치러지는 만큼 '안정적 국정 운영'과 '정권심판'을 놓고 여야간에 사활을 건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일단 한나라당은 3~4곳에서 승리한다면 '성공'이라고 판단,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정권심판론을 토대로 6·2지방선거에 이어 7·28 재보선에서도 승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소 4~5곳 이상의 지역에서 당선자를 배출해야 승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보선 8곳에서 최대 관심지역으로 떠오르는 선거구는 서울 은평을로 꼽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회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

장 상 최고위원을 대항마로 내세운 민주당은 '이재오 나선이 정권 심판'이라는 논리로 선거를 치른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상규, 국민참여당 전호선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협상 여부가 승패를 가를 변수로 꼽히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광주 남구의 경우, 현재 민주당 장병완 후보와 민노당 오병운 후보, 국민참여당 장우철 후보의 대결로 치러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13일까지 후보를 공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후보등록 막판 한나라당 후보의 등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한 일부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남 천안은, 총북 추주 등 충청권 2곳은 세중시 수정안 국회 부결 이후 충청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충청권 2곳의 보궐선거를 승리할 경우 6·2 지방선거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청권 '올인'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세중시 문제로 인해 충청도에서 아직 반(反)한나라당 정서가 강하다는 안희정 총남지사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3곳에서 펼쳐지는 강원지역 재보궐선거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상당한 접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의 기세를 몰아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존의 여당 조직을 바탕

으로 바닥을 다진다면 의외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서 촉발된 '영포 게이트'의 파문은 7월 재보선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짓고 총남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공세를 '재보선용 정치공세'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재보선이 원래 정권 중간심판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영포 게이트'라는 대형 '악재'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보선 선거 구도는 여권이 불리한 형국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동욱·최권일 기자 tuim@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상임고문 등이 12일 강원 태백시 황지동 대산아파트상가에서 열린 7·28 국회의원 태백·영월·평창·정선 보궐선거 후보 연극인 최종원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구 무소속 출마 여부·투표율 변수

## 무소속 강세지역·휴가철 겹쳐 투표 저조 예고

7·28 광주 남구 재보궐선거에선 무소속 후보 출마 여부와 투표율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의 후보들이 결정되긴 했지만, 민주당 공천경쟁에 뛰어들 후보들 중 남구에 지역기반을 둔 후보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윤정 민주당 남구지역위원장 등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의 경우 남구지역위원회 공조직을 장악하고 있는데다 여론조사에서도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아 무소속 출마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지역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남구의 경우 전통적인 무소속 강세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어떤 무소속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 선거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민주당도 남구 보궐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장 관계자를 선거 캠프로 파견하고, 시의원들까지 이번 선거에 대거 동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장병완 후보는 "경선에 참여했던 정동채 전문화관광장관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고재유 전 광주시장도 돕기로 했다"면서 "이윤정 지역위원장 과도 조만간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후보 출마 여부와 함께 투표율도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역대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았던 데다 이번 선거의 경우 휴가철까지 겹치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 직후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투표율이 사상 최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각 정당은 지난 2009년 10

월 28일 전국 4곳에서 실시됐던 재·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39%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최소한 30% 초반 정도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투표율은 20%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지역 내 탄탄한 조직이 있는 후보가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얼마나 많이 끌어 모으느냐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7·28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수는 16만5758명으로, 전체 인구 수 21만5263명의 77%다. 지난 6·2 지방선거 선거인 수에 비해서는 1032명이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전체 선거인 수의 20.87%인 3만4591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3만4038명, 19세 선거인은 3324명으로 집계됐다.

선거인명부는 13일 까지 부재자 신고, 16일까지 정부 열람 및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1일 최종 확정된다. /최권일기자 cki@

# 장병완 "예산전문가로서 지역 발전 견인"

## 정동채 선대위장 수락

장병완 민주당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2일 "33년간 재정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쌓아온 예산전문가로서의 폭넓은 경험을 광주 남구 발전에 쏟아 붓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의 경제발전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창의성 있는 지역의 노력과 함께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산 전문가는 예산 전문가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어 "광주의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자

한다"면서 "창의력 있는 젊은이들을 육성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통야당, 수권정당 민주당을 살리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면서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을 열심히 챙기는 정치인, 큰 꿈을 잃지 않고 역량을 키우는 정치인, 남구민과 소통하는 수려한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대 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남도와 민주당의 입장이 일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과 전남도의 영산강 사업이 이중과세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정직하게 들어가서 전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4대 강 사업에서 제외해 원래 전남도



의 사업인 영산강 벚길 복원 사업으로 바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뜻을 밝혔던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은 "광주와 남구 발전,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공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장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능력도 출중한 분"이라며 장 전 장관의 선거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김재균 의원 광주시당위원장 출마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은 12일 "광주시당 조직을 쇠신하고 갈등 조정과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 원로들의 요구가 강해 이에 응할 것"이라며 광주시당위원장 출마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차기 광주시당위원장을 합의를 위한 방안도 있지만, 정치 안 된다면 경선에 임할 것"이라며 "7·28 재보선 이후 공식 출마회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좋아서 찍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해서'라는 응답이 79.2%에 달했다"며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철저히 쇠신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비주류인 김 의원은 오는 8월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비주류가 당권을 장악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시당위원장 경선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권일기자 cki@

## 靑 신설 사회통합수석 박인주 유력

## 광주출신 윤평중 거론도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사회통합수석으로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통합수석에 경북 철곡 출신의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박 교육원장은 시민단체, 교육계, 정계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데다 시민사회화단체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강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광주 출신의 윤평중 한신대 교수도 지역 배려 차원에서 아직 '살아있는 카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수석이라는 자리가 소통과 통합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윤 교수의 발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민중당 출신 정태운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총남 출신 정진성 서울대교수 등도 사회통합수석 후보로 아직까지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2010 여름 바캉스 국내 여행 상품 (최정수기 오금인상)

2010년 7월 1일 - 8월 30일 출발!! 이제 국내 여행은 섬투어와 함께 하세요! 좋은 일정 -! 정직한 가격!!

제주-제주 활기캠프	강릉7계곡	충남도/강도	충남도/북신도	여론도/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제주특별자치도</li>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제주특별자치도</li>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제주특별자치도</li>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제주특별자치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강원도</li>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강원도</li>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강원도</li>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강원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충청남도</li>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충청남도</li>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충청남도</li>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충청남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충청남도</li>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충청남도</li>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충청남도</li>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충청남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여론도</li>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여론도</li>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여론도</li> <li>● 1박2일 · 1인당 숙박비 · 여론도</li> </ul>

문의: 02-1234-5678 | 홈페이지: www.kwangju.co.kr